

순천시,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추진



순천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사용량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

단독 주택 280여 가구 대상 오늘부터 선착순 접수 태양광 3kw 기준 국비 230만원·지방비 92만원

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독 주택 28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자가 발전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주택 소유자다. 또는 소유 예정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현재까지 14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750가구에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지원했다.

태양광 3kw 기준으로 가구당 국비 230만원과 지방비 92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신청가구는 13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월 320kw 내외로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어 설치 후 2~3년 가동으로 자부담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하다.

순천시에 주소를 둔 주택 소유자 또는 예저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19일 10시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접수순으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자는 사전에 전문기업을 통해 에너지원, 설치규모,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과 맞물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통해 에너지원, 설치규모,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 '전동 킥보드' 안전운행 대책마련

재난안전상황실서 여수경찰서·전동킥보드 업체대표와 간담회

여수시가 최근 청소년 및 20~30대 젊은 층으로부터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수요가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안전운행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수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수경찰서와 전동킥보드 업체대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말한다.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사람과 자동차 통행에 위협을 가하고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과속주행 등 안전운행 위반과 무질서한 불법 주정

차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업체와 여수경찰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위법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규제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이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민관이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오는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미보유자,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주의의무 불이행 및 보도 주행, 지정차로 위반행위 등은 과태료 및 범칙금 처벌 대상으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여수=오상호기자

광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 일부구간 변경 운영

광양읍 서천변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중마 성호@ 2~3차 삼거리(중진초)

광양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일부구간 변경운영 시행에 앞서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했으며 읍면동 이·통장 회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광양읍 서천변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서산교~신안공업사) 도로는 무단으로 설치한 텐트 야영객들의 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교통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10월까지 이동식 차량으로 불시 단속한다. 중동 성호@ 2~3차 삼거리(중진초) 도로는 광양제철소 및 협력, 연관단지 회사원들의 출근시간대에 도로의 병목 및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극심한 차량정체를 해소하고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고정식 CCTV 단속을 06시부터 시행한다.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3일까지 교통과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도 광양시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줄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확산하고자 단속보다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칠 계획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광양=심승섭기자

순천국유림관리소, 꽃무릇 심으며 탄소중립 실현 다짐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청사화단에 꽃무릇 2천주를 심으며 탄소중립 달성의지를 다졌다. 이번 꽃무릇 식재는 올해 조림사업 완료를 기념하여 청사를 꽃무릇으로 화사하게 꾸미고자 적극 추진하였다. 올해 26만3천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완료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꽃무릇의 꽃말인 '참사랑'을 실천 하였다. 탄소중립 적극행정 실현과 함께 국가와 국민 그리고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무릇을 심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심기와 산불예방에 전념하고 있는 직원들이 조림사업 완료를 기념하여 청사를 가꾸는 모습이 꽃처럼 아름답게 보였다”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산림재해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김철우 보성군수, 조직적 일본제품 불매 선언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김철우 보성군수가 16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직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보성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항의하며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전개되었던 2019년 수준으로 일본이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전까지 관급자재 등에서 일일 일본 제품을 구매, 사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일본 제품을 불매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규탄 대회에서는 보성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하여 보성군 어업인들 대표를 비롯한 어촌계협의회, 수산업 경영인연합회, 보성 통발협회, 보성·회천자매협회 등 수산단체도 함께 했다. 김철우 군수가 발표한 성명서의 주



요 내용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표명,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 ▲군민, 어업인, 환경단체 등과 강력 대응 등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핵 테러 행위와 같다.”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125만 톤이 바다로 방류되면 군민의 건강은 물론 어업인들의 생계와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어촌계협의회장은 “어업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본의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보성군과 함께 끝까지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택순기자

고흥군 드림스타트 '해피바이러스' 전파

고흥군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 있는 원거리 아동을 대상으로 '해피바이러스 프로그램'을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특성상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아동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서다. 따라서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이 5명 이상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아동이용시설에 강사를 파견하여 운영한다. 매년 아동이용시설에 희망분야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11

개소 아동이용 시설에 9명의 강사를 파견하여 다례인성 예절교육, 웅변, 축구, 토탈공예, 미술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60여명의 아동이 참여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적은 원거리 아동에게 강사파견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취미활동은 물론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김택영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